

강진군, 공동육아 ‘맘편한센터’ 문열어

육아카페·돌봄·체험공간 갖춰... 연말까지 시범 운영

‘강진맘편한센터’가 지난 18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광주통합특활시 강진군은 이날 강진맘편한센터에서 강진읍, 박현규 강진경찰서장, 윤영성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영유아·아동 관련 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아동·청소년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강진맘편한센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한편,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까지 성장 단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돌봄·놀이·문화 공간을 한곳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509㎡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카페, 놀이·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2층에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공간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공간이 들어섰다. 3층은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으로 꾸며졌다.

군은 강진맘편한센터를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을 함께 지원 하는 가족 중심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인 아이와 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연령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강진맘편한센터는 오는 12월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

군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만족도와 건의사항 등을 살펴보고, 이를 향후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진=정현민 기자 jcrso@siminilbo.co.kr



가야산 치유의 숲 설계 보고회
한 동선 및 산행유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12월 공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이현성 시장과 관련 부서장, 용역 관계자 등이 회의하는 모습.

신림사업 별채 산물 자원화
충남도, 원목생산협약 체결

충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서 사단법인 한국원목생산협회와 산물자원화사업 자립 협약을 위한 민관 양성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명 도 기후환경신림국장과 서동은 한국원목생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맺은 이날 협약은 조림과 소나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신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채 산물을 신속 수집·처리해 산물바이오폐스로 자원화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와 한국원목생산협회는 전문 장비·인력을 연계해 신림사업의 순환 이용을 확대한다 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한국원목생산협회는 ▲조림 ▲가꾸기·병해충 방제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벌채 산물의 신속한 수집과 자원 순환 ▲산수 열의 지원과 산림 작업 기계화 장비 적기 공급 등에 협력한다.

홍성=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경남도, 내달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차단

조류독감 유입 차단... 하천·저수지 14개 지점 통제

경남도는 겨울철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 14개 지점에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8월 전세계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821건으로, 지난 2025년 같은 기간 1432건보다 97% 증가했다.

도는 올해에는 철새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나선다. 출입통제 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2027년 2월 말까지 5개월간이며,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통제 대상은 사슴, 분노,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축산차량이다.

창원=김정현 기자 kjy@siminilbo.co.kr

통제 지점은 주요 철새도래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 지역 등이다. 지난 2025년 바이러스가 검출된 합천 산내면을 포함해 창원 등 7개 시·군에 소재한 주한계수 등 9곳의 철새도래지, 14개 지점을 통제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 공고와 행정명령을 통해 10월1일부터 출입통제를 본격 시행한다.

창원=김정현 기자 kjy@siminilbo.co.kr

추석 연휴 재난·안전등 민생불편 최소화

해남군, 24~27일 7개 분야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대체 상황실도... 성수품 가격 안정화 호민

전남광주통합특활시 해남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관리를 비롯해 재난·안전 및 교통대책, 가축질병, 산불, 청소년, 보건, 급수공급 등 7개 분야를 편성해 각종 상

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먼저 안전한 명절을 최우선으로 연휴기간 재난안전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해 재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를 24시간 유지한다.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 증가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재해,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도 강화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 따른 추석 성수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물가대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농수축산물 및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불공정 행위와 적정가격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전통시장 정보화와 착한가격대상 홍보, 명절 한류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해남=정현민 기자 jcrso@siminilbo.co.kr

명절 물가 안정·주민안전 중점 관리

보성군, 11개 대책반 편성... 읍·면 비상근무 유지
24시간 응급실 운영... 문어는 병원·약국 22곳

전남광주통합특활시 보성군은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군은 연휴 기간 총무과와 관련 부서, 방직실, 재난안전상황실, 12개 읍·면사무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청에는 11개 대책반을 편성해 하루 17~19명이 근무

하고, 12개 읍·면에서도 하루 12명이 비상근무에 나선다.

중점 추진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교통과 안전 관리 ▲재난·재해 대응 ▲비상 진료와 감염병 방역 ▲가축질병 예방 ▲생활폐기물 처리와 생활쓰레기 ▲에너지 공급 안정 ▲산불 예방 ▲소외계층을 위한 등 이다.

연휴 기간 보살아산병원과 상호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된다. 문 어는 병·의원 2곳과 휴일 운영 약국 7곳, 보건기관 11곳 등 총 22개 기관도 비상진료 체계에 참여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하며 기상 상황과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에서는 차량 정보와 대중교통 운행 상황을 관리하고 교통 불편 신고를 처리한다.

군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저소득층, 보훈 대상자 등 1726명에게 위문금이나 생활용품 등을 전달한다.

보성=황승호 기자 whng04@siminilbo.co.kr

산청군, 24~27일 24시간 상황관리... 민생경제 대응

경남 산청군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안전, 공공서비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먼저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11개 대책반 52명 비상근무와 읍·면 생활안전 근무자 44명 편성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와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

간도 운영해 핵심 성수품 19개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바구니 행사를 비롯해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 경품행사, 산청전소품관 특별기획전, 산청명 마실잔타와 로컬푸드 특산물사,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등을 추진한다.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힘쓴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716명과

어려운 군민 40가구 등을 대상으로 위문금과 김나눔, 사회복지 상품모금회와 결연은행, 자원봉사센터, 세미봉사 등과 저소득층 가정과 명절 음식 나눔을 실천한다.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청=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TF 신설

내년 정부시범사업에 공모
지역 여건 반영 계획 보완

전남광주통합특활시 진도군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전담반(TF)을 신설하는 등 사업에 성정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오는 지난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기본소득 전담반(기본소득TF)을 신설했다.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정부 2027년도 공모 일정에 세부 평가 기준을 철저히 살피고, 군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사업 계획을 보완하는 등 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남해군과 청송군

을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현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군은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도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사업 추진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기관과 민간의 소통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소통가 가운데 맞춰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다.

진도=황승호 기자 whng04@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간담회에 참석한 우송희 군수원쪽 세 번째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양군, 베트남 다낭 방송국과 관광 홍보 맞손

전남광주통합특활시 영양군은 최근 군청 군수실에서 베트남 다낭 방송국(DNRT: Da Nang Radio & Television), 다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영양 관광 콘텐츠의 베트남 현지 홍보와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송희 영양군수, 우유엔 루 프엉 다낭시 문화체육관광국 부국장, 우유엔 호우 톱 DNRT 부국장, 영양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영양 관광·문화의 소개하는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 ▲DNRT 방송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양 홍보 ▲

베트남 관광을 위한 정보 교류 ▲문화·관광 분야 인적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측은 월출산국립공원, 왕인박사유적지, 구미마을, 영암 F1경기장 등 영암의 대표 관광자원을 비롯해 화화과·대봉산 등 특산물과 지역 축제를 베트남 시청자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소개할 계획이다.

DNRT는 다낭을 기반으로 TV·라디오·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영 방송국으로, 군은 이번 협력을 베트남 현지 관광 홍보와 관광을 유치 확대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영양=정현민 기자 jcrso@siminilbo.co.kr

청양군, 전 군민 독감 예방접종 일정 앞당겨

충남 청양군이 최근 인플루엔자(독감)의 조기 유행 추세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며칠 전 안내했던 '2026-2027절기 전 군민 무료 예방접종' 일정을 기존보다 6~7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 일정 변경에 따라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들은 물론 15세부터 64세 이하 일반 군민까지 모두 대상자의 접종 시작일이 조정됐다.

특히 기존에는 1회와 2회 접종 대상자에 따라 시작일이 달랐던 성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의 경우 이번 조정으로 접종 횟수에 상관없이 오는 21일부터 일제히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10월8일부터, 15세부터 64세 이하 청양군민은 오는 10월12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연령과 대상군에 따라 지역별 민간 위탁의료기관과 청양군보건복지로에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순천시, 드라마촬영장서 '후역의 음악앨범' 공연

전남광주통합특활시 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추석 연휴를 맞아 순천드라마촬영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후역의 음악앨범' 공연을 선보일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연휴기간 동안 드라마촬영장내 순안극장에서 열리며, 7080세대에게는 그 시절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특별한 감동을, 젊은 세대에는 레트로 문화의 색다른 체험을 제공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밖에도 드라마촬영장 곳곳에서는 고무줄놀이, 대형 윷놀이, 딱지치기, 팬치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설해 세대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드라마촬영장에서 레트로 감성공연을 함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특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영광군·국회외 공직자, 호우피해 성금 기탁

전남광주통합특활시 영광군은 최근 군과 국회의 공직자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특별성금 559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영광군과 영광군의외 공직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특히 영광군 공직자들은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일영 영광군의회 의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영광군의회 영광군의외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장우성 기자 jsy@siminilbo.co.kr

홍성군, 내달 7·8·12일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충남 홍성군은 아와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0월7일, 8일, 12일 총 3일간 홍주문화회관 대강당과 관공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심장지 발생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97%, 2분 이내의 경우 90%에 이른다.

하지만 '골든타임'인 4분이 넘어가면 뇌세포의 손상이 시작돼 10분이 지나면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골든타임' 안에 뇌 손상이 없도록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며,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이처럼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군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의무교육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교육에 희망하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1회당 총 4시간으로 진행되며, 수료자에게는 심폐소생술 수료증이 발급된다.

홍성=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